

리전트 칼리지 일터 연구소

Regent College Marketplace Institute

리전트 칼리지는 1960년대 말 “하나님의 온 백성을 세우는 신학교육”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기독교인들 모두를 위한 신학교육기관으로 시작이 되었다. 믿음과 삶의 통합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과도 견줄 수 있는 탁월한 신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캐나다 서부 제일의 대학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립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다. 일터 신학(Marketplace theology)은 한국에 직장인 선교 혹은 평신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졌으며 이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은 리전트의 은퇴교수인 폴 스티븐스(Paul Steven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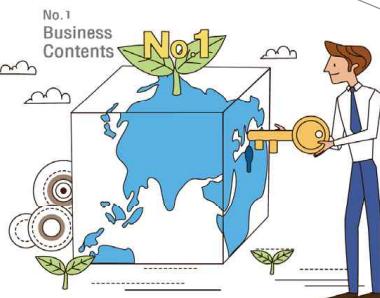
일터 연구소(MI)는 2003년에 폴 스티븐스 교수가 시작하고 2년 후에 퇴임하면서 그 후임자인 폴 윌리엄스(Paul Williams) 교수가 현재까지 소장으로 겸임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는 폴 윌리엄스와 함께 6명의 스탭들이 연구와 행정을 골고루 분담하고 있다. 연구소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비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의 복음을 실천으로 증거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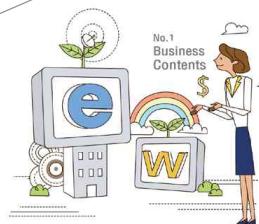
일터 연구소는 신학 연구 및 디자인 전문 기관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은사와 관계성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삶 속에서도 증거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업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개인, 조직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각 영역과 세상의 세계(marketplace of ideas) 전체의 변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기독교 학문, 일터와 세상, 그리고 교회를 엮는 다리 역할을 한다.

사명



주 사업과 활동

우리는 세상의 각 영역에 속한 공적 삶(public life)과 믿음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관점과 사고의 틀(framework), 실천 적용에 필요한 도구들과 지원을 개발하는 일에 힘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요 활동내용은 연구, 교육과 컨설팅이며 이 활동들은 리더쉽 개발, 선교적 정신을 가진 공동체 육성, 연구와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 등의 4가지 프로그램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 연구소 M의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와 일터 (public square and marketplace)에서 개인, 공동체와 조직, 사회전체 각 영역들이 리는 3단계 구조로 나타내 볼 수 있다. M는 세 단계 각각의 수준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서치와 프로젝트



사회와 일터의 개별적 영역 안에 있는 구체적인 이슈들을 연구한다. 예를 들면 일터와 영성의 관계, 현대 자본주의와 지속 가능성의 문제, 리더쉽과 기업가 정신, 과학과 기술, 현대 다원주의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끌어내는 연구들을 일반 사회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도구와 프레임워크(frameworks)로 개발, 공급한다

우리는 기업체가 기초부터 온전히 기독교 신학에 근거하여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신학적 토대위에 디자인하고 이에 대한 훈련 교재, 코스, 컨설팅과 자원 개발로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선교적 정신을 가진 공동체

우리는 교회와 일터에 있는 소그룹들이 선교적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속한 지역, 혹은 전문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지원한다.

리전트 컬리지 학생들은 인턴쉽을 통해서 멘토링, 개인 연구 및 업무를 통한 교육과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며 배운다. 세상의 다양한 조직내 최고 경영자들 및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건전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

리더쉽 개발



박수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 캐나다 리전트 컬리지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마친 후에 현재는 리전트 컬리지 일터 연구소에서 사립과 조직개발 분야를 담당하며 비영리 조직 최고 경영자 영성 훈련 및 경영 컨설팅, 연구 및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 재학시절 1993년과 1994년에 기독교학문연구회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과정을 공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 속에서의 세계관과 교육이 접목될 때에 생기는 문화 영향력에 관심을 얹은 일들을 17년째 하고 있다.